

“주민 안전은 뒷전”... ‘꼼수 공청회’ 밀어붙이는 한수원

합평군 이어 무안군 대관 불허에도 한빛원전 수명연장 공청회 강행 ‘사업주 귀책사유 없이 2차례 무산 땀 정상 진행 간주’ 허점 노린 듯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지자체의 대관 불허 조치로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주민공청회 개최가 불가능한데도 잇따라 행사를 밀어붙이고 있다.

원전 주민들은 한수원이 주민 안전은 뒷전으로 하고 형식적으로 법적 요건을 충족하려는 ‘꼼수’ 공청회를 열고 있다고 지적한다. ‘현행법상 주민 공청회 사업주의 귀책사유 없이 2차례 무산되면 정상 진행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공청회가 주민 반대나 지자체의 대관 불허로 무산돼도 법적하지는 않는 셈이다.

무안군은 22일 예정된 한수원의 무안주민공청회

장소인 무안군 해제면 주민다목적센터 대관신청을 두 차례에 걸쳐 불허했다고 21일 밝혔다.

한수원은 한빛원전 1·2호기가 설계수명(40년) 만료가 각 2025년 12월과 2026년 9월이어서 10년 연장운영을 위한 법적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비상계획구역 지자체 6곳(영광, 함평, 장성, 무안, 부안, 고창)의 주민들에게 환경영향평가 공람을 거쳐 안전성 등을 설명하는 주민공청회의 법적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무안군은 지난 5일 한수원에 주민공청회 장소 대관신청을 불허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 행사에 제동을 걸었다.

무안군은 “지난 9일 한수원측이 합평주민 1421 명이 제기한 ‘한빛원전 1·2호기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 의견수렴 절차 진행 중지’ 가처분 신청 결과를 보고 인용되면 행사를 열지 않겠지만, 기각이 되면 공청회를 열겠다며 대관신청을 다시 요청했다”고 밝혔다.

무안군은 다시 지난 17일 한수원에 대관 불허 공문을 재차 보냈지만, 한수원은 회신을 하지 않고 22일 무안주민 공청회를 열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수원은 “주민공청회는 지자체와 주민이 요청해서 진행되는 수명연장의 절차 중 하나다”며 “무안 행사는 공고한 날짜와 장소대로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안 지진과 같이 천재지변으로 인한 이유가 아닌 이상 개최 며칠 전에 연기를 요청하는 것 같지 않고, 지자체가 연기 공고를 낼 수 있는 충분한 시

간을 주지 않고 연기했기 때문에 사업자의 귀책으로 인한 취소가 아니라는 것이 한수원 입장이다.

무안군의 입장이 유지되면 무안 공청회도 지난 19일 무산된 합평 주민공청회의 전철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무안군은 “한수원이 공청회를 강행하면 불법점용 등 혐의로 고발하는 것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지난 19일 개최하려던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합평지역 주민공청회는 합평군이 주민들의 원전 수명연장에 대한 반발 분위기를 고려해 공청회 장소 대관을 불허해 무산됐다.

한수원은 지난 5일 개최 일시·장소 등을 공고한 점을 들어 이날 주민공청회 개최를 강행했다. 하지만 합평군은 불허결정을 토대로 체육센터의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한수원측도 주민공청회를 위한 장비 등을 문 앞에 쌓아 두고 대처하다 개최 예정

시간인 19일 오후 2시 결국 무산을 선언했다.

지역민들은 한수원이 수명연장을 위해 형식적인 주민공청회를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원안위법상 주민 공청회가 사업주의 귀책사유 없이 2차례 무산이 되면 정상 진행된 것으로 간주된다는 점에서 한수원이 공청회를 강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지금까지 영광, 고창, 함평의 주민공청회에서 한수원은 모두 ‘사업자 귀책사유 없는 무산’을 선언하고 있다.

노종성 무안군 한빛원전 방사능 대책위원장은 “노후화된 원전을 10년이나 더 연장하는 과정에서 동해는커녕 지자체와의 협의없이 일방통행식 한수원의 행태를 받아 들일 수 없다”면서 “지역민의 실질적 안전을 우선시 하지 않으면 한빛원전은 지역과 상생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한수원은 23일 장성주민공청회를 앞두고 있다. /김민지 기자 kdi@kwangju.co.kr



일지리를 찾아서 광주시교육청과 함께하는 2024년 광주진로진학박람회 지난 20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핫플’ ACC 하늘마당 농약 검출

저독성이라 인체 영향은 없지만 도심 녹지 농약 허용기준 시급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은 최근 광주시 동구 ACC하늘마당에서 농약 사용량·잔류량 등을 조사한 결과 토양에서 살균용 농약 ‘아족시스트로빈’이 미량 검출됐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연구원은 지난 5월 13일부터 21일까지 광주시 내 잔디광장과 파크골프장 등 7개 녹지공간에서 농약 잔류량을 조사했다.

조사 대상은 ACC하늘마당을 비롯해 풍암생활체육공원, 송산근린공원, 점단체육공원, 시립수목원, 북구 대상파크골프장, 광산구 임곡파크골프장 등이다.

조사는 농약 25종에 대한 잔류량을 조사해 특정 농약 성분이 토양 1kg당 0.01mg(0.01ppm) 이상 농도를 보이면 ‘검출’ 판정을 받는 식으로 조사했다.

조사 결과 ACC하늘마당에서는 저독성 살균제 아족시스트로빈이 토양 1kg당 0.07mg(0.07ppm) 농도로 검출됐다. 이외 6곳 조사대상지에서는 농약이 검출되지 않았다.

아족시스트로빈은 우리나라에서 흔히 발생하는 잔디 질병 ‘라지 패치’(large patch)를 예방하기 위해 살포된 것으로 확인됐다.

아족시스트로빈은 유럽연합(EU) ‘화학물질 분류, 표시 및 포장에 관한 규정(CLP)’에 따라 흡입 시 인체 건강에 유독한 물질로 분류돼 있다. 인체 노출 시 증상은 밝혀진 바 없으나 피부 통증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ACC하늘마당에서 검출된 농약은 저독성으로 분류되는데 많은 양이 검출되지 않아 인체에 대한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연구원은 현재 도심 자연녹지 등에 대한 농약 잔류 허용 기준이 별도로 없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골프장 등의 경우 물환경보전법 등에서 농약잔류량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도심 자연녹지에 대한 기준은 없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뉴진스 카페’ 좋다 말았네

광주 동구, 저작권 문제로 행사 취소... “관 주도 행사 안할 것”

광주시 동구가 지난 19·22일 광주시 동구 총장로 ‘K-POP 공유카페’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뉴진스(New jeans) 데뷔 2주년 축하 카페’ 행사(7월 10일자 광주일보 2면)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동구는 지난 18일 오전 걸그룹 뉴진스의 소속사로부터 저작권 위반 관련 내용증명을 받은 데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뉴진스는 2022년 데뷔해 ‘어텐션’(Attention), ‘하입 보이’(Hype Boy), ‘디토’(Ditto) 등 곡을 발표해 인기를 끌고 있는 K-POP 걸그룹이다.

소속사 측은 내용증명을 통해 동구가 총장로 상권 활성화 등 홍보 의도를 갖고 행사를 열었다고 판단된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순수하게 팬이 개최하는 ‘생일 카페’도 불법의 소지가 있는데, 하물며 지자체에서 같은 행사를 열 경우 추후 저작권법 위반 등으로 법적 분쟁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동구는 행사 하루 전날인 지난 18일 관계자 긴급 회의를 열고 행사를 전면 취소하기로 했다. 행사를 위해 제작한 뉴진스 관련 사진과 굿즈 등

도 전부 폐기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동구는 뉴진스 데뷔일(7월 22일)에 맞춰 ‘생일 카페’ 형식으로 축하 행사를 열 계획이었다. 총장상권르네상스(상권활성화) 사업을 통해 ‘K-POP 공유카페’를 새로 오픈한 뒤 여는 첫 행사로 기대를 모았다.

공유카페는 총장로 ‘K-POP 스타의 거리’와 연계해 K-POP 팬들이 매일 각기 다른 아티스트의 생일 또는 기념일에 자유롭게 카페 공간을 대관해 팬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동구는 “저작권 문제를 섬세하게 파악하지 못했다. 뉴진스와 관련된 모든 물건을 폐기해 저작권에 위배될 소지가 없게 하겠다”며 “공유카페를 자유롭게 대관할 수 있도록 열어두고, 관에서 주도하는 행사는 일절 하지 않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

남구의회 파행... 공무원들 “갑질 의회” 원성

광주시 남구 의회 후반기 원구성이 의원들간 ‘갑 그릇 싸움’으로 차질을 빚자 공직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21일 남구의회에 따르면 의회는 오는 25일부터 31일까지 제305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당초 연중회기운영계획안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는 지난 9월부터 17일까지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 4일 기획총무위원회 투표 과정에서 투표용지 촬영 문제가 불거져 원 구성이 미뤄졌다. 임시회가 2주 이상 늦어져 여름 휴가 일정에 차질이 생긴 공무원들 사이에서 의원들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남구청 새을지방행정시스템에는 ‘숙소, 항공권 등을 미리 예약해둬 위약금을 내게 생겼다’, ‘의회가 정식으로 사과해야 한다’는 등의 게시글이 올라오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남구지부는 “지난 18일 남호현 의장과 면담을 통해 업무 보고를 서면으로 대체할 것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면서 “22일 ‘갑질의회’를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벌이는 등 적극적으로 투쟁할 것”이라 21일 밝혔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함께하는 100년농협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꼭!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비서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꼭 바로 바로 확인까지 꼭!

zgm
zgm.the pay 카드

- 비대면 발급 전용 상품
- 국내 해외 전 가맹점 10% 할인
- N-페이 온라인 결제 1.7% 할인
- 10대 페이 온라인 결제 1.2% 할인
- 전월 실적 제한없음

(우) All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무배당)

누구에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파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20만원(1일 이상 90일 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 특약 가입 시 월 5만원으로 만기 시 88% 환급 (매월 변동 가능, 공시율 2023년 6월 기준)

햇살론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맡기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용 산 지 점 062)526-0222~3	유 등 지 점 062)512-1984~5	유 덕 지 점 062)373-3235~6	운암백산지점 062)529-5335~6	동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치 평 지 점 062)381-8212~3	동 립 지 점 062)513-8521~3	동 운 지 점 062)528-2640~2	빛 고을로지점 062)531-1213~5	로컬푸드(시청) 062)364-8400
쌍 촌 지 점 062)381-6551~2	운 암 지 점 062)527-3295~6	배 들 지 점 062)381-1971~2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유택하나로마트 062)373-3235
화 정 지 점 062)372-0421~3	운 천 지 점 062)371-2772~3	상 무 등 지 점 062)372-3741~2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하나로마트동림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